

##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김은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 A Study on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Multicultural Efficac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Eun Jae Kim\*

Dep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Received September 24, 2021; Revised October 06, 2021; Accepted October 19, 2021)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 research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on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acceptance.

**Metho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analyzed using SPSS/WIN 25 program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perception and multicultural efficac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Variable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multicultural awareness ( $\beta=0.30$ ,  $p<0.001$ ) and multicultural efficacy ( $\beta=0.49$ ,  $p<.001$ ), and multicultural 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 among the variable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fficacy, the multicultural efficacy variable had a greater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both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for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57.5% ( $F=59.33$ ,  $p<.001$ ).

**Conclusion:**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of nursing students ar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effica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broaden acceptance.

**Key Words:**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efficacy, Multicultural experience, Nursing students

---

\*Corresponding author : [kkhyang@jhc.ac.kr](mailto:kkhyang@jhc.ac.kr)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경로와 교류를 통해 세계화 및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인구 구성 2020년 기준에서 우리 나라 인구 51,667,688명이고, 그 중 외국인 체류 현황은 2,077,053명이다<sup>1)</sup>.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유학생을 포함하여 전문인력, 단순 기능인력,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취득자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남녀 간 결혼관의 변화, 노동력 수급 구조 변화 등으로 다문화 가족의 형성도 지속해서 다문화 사회의 증가 요인이다<sup>2)</sup>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개방된 시각,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현상이 반영하듯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다문화 관련 강좌 수를 증설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별 간호학과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sup>3)</sup>.

다양한 문화의 증가는 건강 및 질병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약 의료인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상자를 간호하게 된다면 대상자의 건강 결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예비간호사에게 다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수용성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sup>4)</sup>. 다문화 대상자의 증가는 다양한 간호수행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실천할 주역인 간호대학생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켜 건강 형평성을 지닌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sup>5)-10)</sup>

다문화 경험은 여러 형태의 집단 내에서 생활 방식과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해 인지하고, 서로 다른 문화의 배경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다<sup>5)-11)</sup>.

다문화 경험과 인식이 높을수록 다른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문화 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지녔다 할 수 있다<sup>5,6)</sup>. 그러므로 문화 다양성을 지닌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끼치게 될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은 중요하며<sup>3,4)</sup>, 다문화 경험과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삶의 과정에서 획득하는 다문화 경험은 해외 방문, 해외 거주, 외국인 친구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 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sup>6,7)</sup>.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문화적 다양성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다문화 효능감은 간호대학생으로서 간호 대상자들이 가진 간호 문제를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근거한 간호 수행을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sup>8)</sup>.

다문화 수용성은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향상해 나가는 능력이며, 하위요소에는 문화적 인식, 문화적 태도, 문화적 지식 및 기술이 있다<sup>12,13)</sup>.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 관련 경험 및 인식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효능감이 간호대학생에게는 대상자 간호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최적의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 대상자들의 건강 형평성 유지와 건강 증진 도모에 힘써 효율적인 간호 중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에게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재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 경험, 다문화 효능감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경험,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다문화 경험,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경험과 인식,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J시 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편의표집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상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수가 176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탈락률을 고려한 대상자 수는 총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수거된 설문지는 총 240부 중 237부이며, 설문지 기록이 부실한 12부는 기록이 부실하여 총 225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JIRB-A20-05)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 2.4 연구도구

#### 2.4.1. 다문화 경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경험 측정하기 위하여 Yuk<sup>3)</sup>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응답은 '1=예', '0=아니오'으로 총합은 0~28점에 분포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경험이 풍부한 것을 의미한다. 이전 Yuk<sup>3)</sup>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801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30로 나타났다.

#### 2.4.2. 다문화 인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 & Kim<sup>14)</sup>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 Kim<sup>14)</sup>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 계수는 .799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26으로 나타났다.

#### 2.4.3. 다문화 효능감

본 연구에서 다문화 효능감은 lim<sup>15)</sup>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lim<sup>15)</sup>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2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4이었다.

#### 2.4.4.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Lee<sup>16)</sup>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Lee<sup>16)</sup>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로 나타났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기술통계로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경험,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수용성은 t-test로 분석하였다. 변인 간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하였으며, 다문화 경험 및 인식 그리고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 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다문화 효능감의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수용도 변수가 정규성을 만족하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으며, 왜도의 기준은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수용도 정도를 살펴보면, 다문화 경험은 20점 만점에 평균 10.44(±3.82)점이었고, 1~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는 다문화 인식은 평균 3.83(±0.41)점, 다문화 효능감 4.07(±0.50)점, 다문화 수용도는 3.87(±0.5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easured variables (N=225)

variable	MIN	max	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
Multicultural experience	2.00	20.00	10.44	3.82	.285	-.141
Multicultural awareness	2.60	4.80	3.83	.41	.005	-.290
Multicultural Efficacy	2.93	5.00	4.07	.50	.082	-.300
Multicultural Receptivity	2.33	5.00	3.87	.54	.095	-.264

Range : Multicultural experience 0~20, et al 1~5점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3.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225명중 남자가 45명(20.0%), 여자가 180명(80.0%)으로 여자의 비율이 많았다. 연령을 보

면, 만20세가 56.0%, 만학도가 포함된 만20세 이상이 44.0%였으며,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스스로 결정이 70.2%, 성적과 외부의 권유로 29.8%였다. 다문화 관련 과목 수강 경험은 없다는 64.9%로 많았으며, 정규 고등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도 없다는 응답이 80.0%로 높게 나타났다(Table2).

Table 2.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experience,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5)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	Multicultural Experience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Efficacy		Multicultural Receptivity	
			M±SD	t	M±SD	t	M±SD	t	M±SD	t
gender	man	45(20.0)	9.89±3.77	-1.09	3.74±.51	-1.52	3.87±.57	-3.03**	3.76±.64	-1.62
	Woman	180(80.0)	10.58±3.83		3.86±.38		4.12±.47		3.90±.51	
age	under 20 years old	126(56.0)	10.79±3.55	1.52	3.91±.37	3.07*	4.14±.46	2.39*	3.98±.49	3.40***
	over 20 years old	99(44.0)	10.01±4.13		3.74±.44		3.98±.53		3.74±.57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decide for yourself	158(70.2)	10.28±3.91	-1.00	3.80±.39	-2.20*	4.06±.49	-.70	3.84±.53	-1.64
	grades and external invitations	67(29.8)	10.84±3.60		3.93±.46		4.11±.52		3.96±.55	
multicultural Course taking experience	Yes	79(35.1)	10.44±4.18	-.00	3.83±.46	-.03	4.04±.55	-.74	3.87±.59	-.04
	NO	146(64.9)	10.45±3.63		3.84±.39		4.09±.47		3.88±.51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Yes	45(20.0)	10.11±4.07	-.65	3.84±.47	-.17	4.01±.60	-.92	3.94±.57	.90
	NO	180(80.0)	10.53±3.76		3.83±.40		4.09±.47		3.86±.53	

\*p<.05, \*\*p<.01, \*\*\*p<.

### 3.3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인식(r=.38, p<.001), 다문화 효능감(r=.36, p<.001), 다문화 수용성(r=.21, p<.01)과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효능감(r=.73, p<.001), 다문화 수용성(r=.66, p<.001)과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효능감도 다문화 수용성(r=.70, p<.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easured variables

(N=225)

variable	Multicultural Experience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Efficacy	Multicultural Receptivity
Multicultural Experience	1.00			
Multicultural Awareness	.38***	1.00		
Multicultural Efficacy	.36***	.73***	1.00	
Multicultural Receptivity	.21**	.66***	.70***	1.00

3.4.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는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남녀의 분포 차이가 큰 성별 변인과 (table 2)에서 측정 변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정된 연령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다문화 효능감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되는 독립변수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한 결과, 모든 변인의 VIF 계수가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투입된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의 통제를 받는 상태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문화 인식( $\beta=0.30, p<0.01$ )과 다문화 효능감( $\beta=0.49, p<.001$ )의 두 변인이었으며,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변인중 다문화 효능감 변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두 변인 모두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회귀모형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57.5%( $F=59.33, p<.001$ )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Variable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N=225)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	VIF
(Constant)	1.14		3.28***	
Gender	-.06	-.04	-.91	1.053
Age	-.03	-.17	-3.75***	1.066
Multicultural Experience	-.01	-.08	-1.74	1.195
Multicultural Awareness	.39	.30	4.56***	2.262
Multicultural Efficacy	.53	.49	7.39***	2.250

F=59.33, p<.001, R2=.575

\*p<.05, \*\*p<.01,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경험·인식 그리고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경험 정도는 다문화 교육 경험, 다문화 과목 수강경험 유무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선행 연구의 다문화 수업의 이수 여부에 따라서 다문화화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Park & Park<sup>4)</sup>과 Lim<sup>15)</sup>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선행 연구 Park & Kim<sup>14)</sup>의 결과에서는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의 여부가 다문화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자의 다문화 경험은 20점 만점에 평균 10.44(±3.82)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연구한 Choi<sup>17)</sup>에서 3.6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또 다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oh & Lee<sup>18)</sup>의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 경험 11.38(±3.75)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다문화 인식( $t=3.07, p<.05$ )과 다문화 효능감( $t=2.39, p<.05$ ), 다문화 수용성( $t=3.40, p<.001$ )이 차이를 보였으며, 차이를 보인 변수 모두 20세 미만 집단이 20세 이상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즉, 어린 나이일수록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이며, 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

화에 대한 인식이 간호 실무에 대한 다문화 효능감도 향상된다는 Noh & Lee<sup>18)</sup> 연구 결과와 Kim & Lim<sup>19)</sup>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다문화 인식 형성은 어릴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폭 넓은 지식을 학습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로 인해 부족한 다문화 관련 정보는 사회 관계망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간호학과 입학 후에는 1학년 때부터 교양과 간호이론의 각종 모델과 개념 관련 보건의료의 사회문화적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습득하게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질적인 임상 실습 및 다문화 간호 수행 경험을 통해 다문화 간호에 대한 폭 넓고 다양한 견해 및 인식 개선을 가질 수 있다는 Kim & Choi<sup>20)</sup>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인식은 3.93(±0.41)점으로 나타났으며, Kim & Choi<sup>20)</sup>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의 다문화 인식이 3.78(±0.58)점 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선행연구와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Jeon & Lee et al<sup>21)</sup> 연구의 간호대학생과 일반학과 학생의 다문화 인식 수준을 비교한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연구 대상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4.07(±0.50)점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Lee<sup>7)</sup>의 연구에서도 3.73(±0.6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Lim<sup>15)</sup>의 연구에서의 다문화 효능감이 3.79(±0.57)점으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효능감( $r=.73, p<.0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Cheon<sup>18)</sup>의 연구( $r=.56, p<.001$ )에서도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다양한 다문화의 인식은 다문화에 대한 효능감과 상관성이 있으며, 이는 기존 다문화에 대한 인식 여부가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 시킨다는

Choi & Lee<sup>10)</sup>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경험 통해 다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및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간호대학생이 효율적이며 전인적인 간호 제공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문화 인식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외국에 대한 문화적 경험과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면·비대면 등 활발한 접촉을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 국내 다문화가정의 돌봄에 관한 봉사경험 등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문화 경험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강좌편성이 요구되며 그로인해 다문화 효능감이 형성되고 다문화 수용성이 증진된다는 결과는 Kwak & Park<sup>22)</sup>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자신감이 생겨 다문화 인식 및 태도와 함께 다문화 수용성도 폭넓게 증진시킬 수 있다는 Lim<sup>15)</sup> Kim<sup>9)</sup> 연구결과와 Kwak & Park<sup>22)</sup>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이(3.35점) 사회복지학과 대학생(3.23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Jeon & Lee et al<sup>21)</sup> 연구의 결과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 3.97점을 지지해 주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sup>11)13)21)</sup>,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경험과 인식, 다문화 효능감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문화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다문화의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간호 중재를 제공하고 건강 형평성을 위

한 간호 수행방법을 습득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경험·인식 그리고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간호사로서 취업 후 다양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경험·인식,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가진다. 다문화의 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인식개선이 요구되며 간호학과 입학 후 저학년 때부터 다문화 관련 교육과 다양한 해외 봉사,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접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문화 수용성을 갖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였으며 둘째, 간호학과 입학 후 1학년으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다문화 효능감과 문화적 수용성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수정, 보완하여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호대학생의 비교분석의 연구를 통해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0\_Status of Foreign Residents.  
<http://www.mogaha.go.kr>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0 National Population Statistics Table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a2c24545aff84f0d82f918ac68bdf676.hwp&rs=/rsfiles/201909/>, 2020.
3. Yuk MH.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awarenes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5.
4. Park MH, Park EA. Effect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on Nursing Cultural Competency Enhancement,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2013;6(2):116-133. DOI : <http://dx.doi.org/10.15186/ikc.2018.3.68.25>
5. Choi HJ. An Exploratory Study on Multicultural Experiences and Cultural Competencies of Multicultural Practitione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011;37:405-439.
6. Cho YM, Seok SH. Effect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Competence on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Nursing Students.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10): 190-197. DOI : <http://dx.doi.org/10.5392/JKCA.2019.19.10.190>
7. Lee SK. Empathy ability of preservice teachers,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multicultural efficacy, Teacher Education 2017;33(2):263-281.
8. Kim JY. A Study on the Racial Attitudes and Cultural Competencies of Multicultural Practitioner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raduate School, 2013. DOI : <http://www.riss.kr/link?id=T13234099>
9. Kim KH. Effect of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Openness, Stereotypes, and Multicultural Receptivity on Multicultural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y-Academic Technology, 2018;19(8):211-219.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8.19.8.211>
10. Choi YH, Lee SC.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2015;5(5):



- 297-305.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11. Kim JA, Choi J. Correl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Studies*, 2016;9(4):67-88.
  12. Cheon JY.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Attitudes and Multicultural Efficacy of Graduate School Students in General Social Stud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3.  
DOI : <http://www.riss.kr/link?id=T13252959>
  13. Park JY, Choi SN, et al.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on North Korean Defectors,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5):632-643.  
DOI : <http://dx.doi.org/10.5392/JKCA.2019.19.05.632>
  14. Park JO, Kim JS. A Study on Multicultural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Culture, 2018;68:25-55.  
DOI : <http://dx.doi.org/10.15186/ikc.2018.3.68.25>
  15. Lim JY.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fficacy of Boy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9.
  16. Lee IS, Jo JY. A Study on Multicultural Receptivity and Social Dist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Health*, 2015;5(1):1-9.
  17. Choi HJ. An Exploratory Study on Multicultural Experiences and Cultural Competencies of Multicultural Practitione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011;37:405-439.
  18. Noh YK, Lee OS.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and Cultural Empathy on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Nursing Students,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2018;16(11):373-381.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18.16.11.373>
  19. Kim NH, Lim SY.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2014;7(4):169-184.
  20. Kim JA, Choi J. Correl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Studies*, 2016;9(4):67-88.
  21. Jeon MS, Lee SK, et al. Multicultural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Health*, 2016;6(2):39-44.
  22. Kwak EH, Park JS.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Nursing*, 2013;43(5):694-696.  
DOI :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690>
  23. Park JY, Choi SN, et al.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on North Korean Defectors,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5):632-643. DOI : <http://dx.doi.org/10.5392/JKCA.2019.19.05.632>
  24. Jeong YS.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vent/Activity Experience on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General Adult Koreans-Focused on Differences by National Identity Type, *Korean Journal of Public Management*, 2018;32(2):267-294
  25. Ahn OH, Baek SS, et al. Cultural Competence according to Multicultural Experience of Japanes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Health*, 2012;2(2): 19-26.
  26. Ahn SR, Noh Y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Empath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Information and Statistics*, 2020;45(1):30-36.  
DOI : <http://www.riss.kr/link?id=T15167269>